

제 1 강

모세의 시내산 8 차 등장

출 19:1-6

출 19:1-6

19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때부터 제 삼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

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

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

4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

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

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

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신 후, 시내산으로 처음 인도하셨다.

출 3:12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

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다. 언약체결 과정에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8 번이나 부르셨다.

하나님께서서는 왜 모세를 8 번이나 시내산으로 부르셨으며, 이 전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인가?

모세의 8 차등정의 날짜와 각 등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자.

날짜 — 시내산 도착한 날은 제 3 월 1 일

출 19:19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삼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

여기“제 삼월“은 히브리어로 ”호데쉬 쉘리쉬“이다. 직역하면, “세 번째 월삭”이라는 뜻. 월삭은 항상 달의 첫 날. 제 삼월 1 일에 도착했음을 알려준다.

1. 제 1 차 등장

날짜: 제 3 월 2 일 (월)

출 19: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체결을 제안하셨다.

출 19:5 - 6: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

하산:

출 19:7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

2. 제 2 차 등장

날짜: 제 3 월 3 일 (화)

출 19: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

3 일동안 성결을 명령하심

출 19:10 - 11: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11 예비하여 제 삼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 삼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

하산

출 19:14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

3. 제 3 차 등장

날짜: 제 3 월 5 일 (목)

출 19:20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 가매

하나님께서 제 3 일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을 만나셨다

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신칙령을 내리시고, 오르면 죽는다고 경고하셨다.

출 19: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

하산

출 19:25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

4. 제 4 차등정

날짜: 제 3 월 6 일 (금)

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선포하여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심 (신 4:10-13). 이 날은 “총회의 날”

신 9:10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

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자, 모세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머지 율법을 받았다.

출 20:1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

출 20:21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

하산

출 24:3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

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(출 24:4)

그 다음날, 시내산 언약체결식 (3 월 7 일, 토)

출 24:7-8: 7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

5. 제 5 차 등장

날짜: 제 3 월 7 일 (토)

출 24: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인이 올라가서

시내산에서 언약 체결 기념 식사.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!

출 24:10-11: 10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11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

하산: 성경에 기록이 없음

6. 제 6 차 등장

날짜: 제 3 월 8 일 (주일)

출 24:15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

모세는 40 주야를 금식 (첫번째 40 일 금식). 이때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고, 성막 식양도주셨다.

신 9:9-10: 9 그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10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

하산: 제 4 월 17 일 (목)

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,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 하였다. 모세가 내려와서 산아래로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렸다.

출 32: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

출 32:19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 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

7. 제 7 차 등정

날짜: 제 4 월 18 일 (금)

모세의 40 일 중보기도

출 32:30-31: 3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31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

신 9:25 그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 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

하산: 제 5 월 28 일 (화)

출 32:34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

모세는 진 밖에 임시 회막을 세워서 중보기도하였다 (제 5 월 29 일, 수)

출 33:7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처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

8. 제 8 차 등정

날짜: 제 5 월 30 일 (목)

출 34: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

출 34:4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

모세의 두 번째 40 일 금식기도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돌판과 같이 두 돌판을 깎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,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다

출 34: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

신 10:4 여호와께서 그 총회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

하산: 제 7 월 10 일 (대속죄일)

모세가 두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,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.

출 34: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껍질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

시내산 8 차등정의 구속사적 교훈

첫 언약 때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기록하셨다. 그러나 새 언약때는 우리의 심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.

렘 31:3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

더 나아가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는 우리가 마지막때 회복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예표한다.

고전 3: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

요일 3: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

사 60:1-3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 열방은 네 빛으로,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

제 2 강

하나님의 계명 (계 12:17)

마지막때 용이 싸우는 자들은 남은자. 남은자의 정의는. 두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.

하나님의 계명. 예수님의 증거

계 12:17 (KRV):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

*계명 (έντολή) "엔톨레"의 복수형: 십계명

1. 십계명의 올바른 해석이 난제

같은 십계명. 같은 말씀인데, 말씀을 받는 자들에 따라 다르게 "해석"이 된다. 이것이 인류의 딜레마(난제)이다.

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

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(데오-프뉴토스 God-breathed) "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다"

딤후 3: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

이처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.

그러니 성경의 해석도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건가? 하나님뿐(고전 2:10-11).

성경 66 권 전체는 십계명을 돌쩌귀삼아 돈다.

마 22:36-40: 36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
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
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
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
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

유대인들은.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십계명을 변질시켰다.

율법의 완전한 사람이었던 "사도바울"자신은 고백했다.

본래는 생명과 은혜의 율법인데 "죽이는 계명으로 전락시켰다고.

행 22:3-4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자라

4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십계명이 “죽이는 계명”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.

고후 3:7 “둘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(글자)의 직분..” -> 십계명 돌판을 의미.

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율법은 계속 “죽게 하는 글자들”로 남는다.

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, 다시 십계명을 ”근본 부터 밝히“ 즉 하나님의 ”본래“대로 해석해주셨고 (마 5 장), 율법의 완성을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셨다.

마태복음 5:17 - 19: 예수와 율법

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

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

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

율법의 마침

롬 10: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

2. 율법. 십계명의 중심원리는 사랑

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살고 있고,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. **마 22:40** 예전 십계명의 두 줄기를, 첫 4 말씀은 ”하나님을 사랑하라“, 그리고 나머지 6 말씀을 ”이웃을 사랑하라“는 명령으로 설명한다.

하나님과 관계 (하나님을 사랑하는 법)

1 계명 (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): 누구에게 예배 드릴 것인가 하는 ”예배 대상“

2 계명 (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,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):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”예배 방법“ 우상을 만들지 말고. 신령과 진정으로.

3 계명 (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지 말라): ”예배의 정신“은 ”하나님의 이름“을 높이는 것.

4 계명 (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): ”예배의 시간“

이웃과의 관계 (이웃을 사랑하는 법)

5 계명 (네 부모를 공경하라):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명.

6 계명 (살인하지 말지니라): 모든 생명의 존엄성. 존귀하게 여기라.

7 계명 (간음하지 말지니라):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계명.

8 계명 (도둑질하지 말지니라): 이웃의 소유의 존엄함.

9 계명 (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): 진실의 존엄함.

10 계명 (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): 자족. 지족.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 가는 길, 곧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계명

3. 예수께로 돌아가야 완고한 마음을 덮었던 수건이 벗어진다.

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때, 이 영광이 어마어마해서,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고. 그래서 “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” (13 절).

고후 3:12-18: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

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

14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

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(들의) 마음을 덮었도다

**[여기서 “모세의 글”은 십계명, 더 나아가 “구약 전체”: 예수님이 없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]

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

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

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

고후 3:2-3: 2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바라

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떡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